

투데이

광주 차상위계층 1만가구 의료보험 死角

월 1만5천원 이하 5560세대 6개월이상 체납
區別 건강보험료 지원책 대다수에 '그림의 떡'

광주지역 1만여 가구 이상의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 3) 환경복지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만1252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료 전체 대상 가

구 54만3475 가구의 15% 정도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6개월 미만 동안 체납한 가구 수는 3만6985가구이며, 월 납입보험료 1만5000원 이하를 내지 못하는 가구 수는 503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미 자격을 상실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6개월 이상 체납 가구도 4만2877가구에 이른다. 이 중 1만5000원 이하 체납가구는 5560세대였다. 건강보험료 월 1만 5000원 이하 가구는 사실상 차상위계

층에 해당함에 따라 광주지역 1만 가구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부양가족까지 합친다면 광주 인구의 1%가 넘는 1만7000여 명 정도가 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차상위 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조례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동구를 제외한 광주 4개 자치구가 올해 1월~5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사례는 976가구에 그쳤다.

이처럼 지원 대상이 적은 것은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때문이다.

문상필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지역 차상위 계층 수는 1만7432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차상위 계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차상위계층 가운데 소수만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가구로 제한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각 자치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원 대상에 부합해도 전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상위 계층의 숫자와 소득수준 등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일원화해 형평성에 맞게 광주시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발전에 힘 모읍시다" 지난 8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역대 도지사 초청 도정보고회'에 참석한 전·현직 전남 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31~32대 허경만, 23대 문창수, 21대 김창식, 18대 고건 전 지사, 박준영 현 지사, 19대 장형태, 26대 백형조, 28대 이군범 전 지사. <전남도 제공>

"광주시, 포 사격장 장성이전 계획 중단하라"

郡·주민 강력 반발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산구 평동 포 사격장 이전 사업과 관련 이전대상자인 장성군과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장성군의회는 지난 8일 제234회 정례회에서 김양수 군수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군의회는 "광주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과정에 평동 포사격장을 사전 협의도 없이 우리 군으로 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전 계획이 마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와 국방부는 밀실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광주의 발전을 위해 장성 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포사격장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강문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평동 포사격장은 기존 장성 제병훈련장과 그 인근의 토지 일부를 매입해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성군 관계자는 "광주시와 지금까지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광주시에 이전 반대 공문까지 보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이전 계획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장성 포 사격장 내에 이미 박격포사격장이

있어 평동 사격장이 보병학교 내로 이전하고, 추가 시설이 들어설 면적만 필요해 사실상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용역을 발주해서 구체적인 시설과 주민 피해 등을 조사한 뒤 장성군과 세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동 포 사격장은 1948년 국방부에 징발된 뒤 보병학교와 기계화학교 등 6개 부대가 포 사격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1995년 삼우대가 장성으로 이전하면서 기갑 및 포병사격장은 이전했으나 평동 박격포사격장과 동백훈련장을 계속 이용해오다가 지난 4월 광주시와 포병학교가 이전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전남 국민연금 수령 227만원 '꿀찌'

광주는 1인당 年 275만원...울산 394만원 최고

광주·전남 지역주민들이 타 시도에 비해 국민연금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발표한 '2010년도 지역별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민 1인당 연평균 수급액은 275만3854원으로,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적었다. 전남은 227만 3000원에 불과해 전국 16개 광역자치

단체 중 꿀찌를 기록했다. 현행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타 지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울산시는 수급자 1인당 연 394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전남 수급자에 비해 평균

120만~170만원을 더 받았다. 이어 서울은 330만8000원, 인천 317만4000원, 경기 316만2000원, 부산 316만 2000원, 대전 308만원, 대구 289만 9000원 순이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이 227만3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충남 247만2000원, 전북 237만3000원 순이었다. 시군구 중에는 울산 동구가 519만원으로 서울 강남구(464만원)와 서초구(457만원)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식기자 chadol@

"옛 광주 과학고 부지 아파트건립 불허할 것"

羨시장 시민과 대화

강문태 광주시장은 광주 남구 주월동 옛 광주 과학고 부지(1만3천807㎡)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8일 시청에서 열린 '시민과 대화'에서 옛 과학고 부지의 아파트 건립설에 대해 "옛 과학고 부지가 교육청 소유이긴 하지만, 아파트를 지으려면 광주시가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5개 자치구 중 남구만 유일하게 국민생활체육회관이 없다"며 "문제가 된 옛 과학고 부지를 학교 또는 문화관련 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해당 부지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다만 막대한 매입 비용 확보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여수박람회 자원봉사자 3만8천명 몰려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 모집에 3만 8000여명이 몰리고 이색 경력자들 도 다수 지원하는 등 참여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모집인원 1만3000명을 목표로 4월부터 10월 동안 실시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총 3만8000여명이 신청했으며 특이한 이력과 지원 동기로 눈길을 끈 사람들도 많았다.

최고령자 기록을 세운 김남필

(82)씨는 엑스포에 참여하기 위해 1년째 일본어 교육을 받을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고 1993년 대전 엑스포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황승현(79·서울)씨도 노장 투혼을 내비쳤다.

해외 참가자들도 많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코리아스쿨의 한인 2세 대학생 130여명은 단체 참가를 신청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권은애(여·19)씨는 "모국에서의 자랑스런 세계축제에 당당하게 주

한인 2세·유학생 대거 지원 82세 최고령자 참여 '눈길'

역으로 참여하고 싶다"며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감동을 주겠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미네소타 주립대 유학생 30명도 미국과 한국의 문화교류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신청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통역 분야에 지원한 김은정(여·49)씨는 전직 신문기자이자 현직 시인으로서 여수엑스포 관련된 기사를 캐나다 신문에 직접 기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

광주·전남 4500가구 1만명 판잣집·공사장 등서 지낸다

광주·전남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지만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공사장 임시막사, 상가, 찜질방, 움막 등에 살고 있는 주민이 광주는 11222가구에 3731명, 전남은 3407가구 63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거처의 종류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인 가구는 1만6880가구이며 가구원은 3만8967명으로

집계됐다. 또 거처의 종류가 '기타'로 분류된 가구는 9만6824가구로 가구원은 21만6863명에 달했다.

주택보급률이 지난 2009년 말 현재 103.7%에 달하는 광주의 경우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이 115가구 272명이었고, '기타'에 거주하는 주민은 1007가구 3459명이었다.

111.1%의 주택보급률을 보인 전남은 313가구 699명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으며

3034가구 5616명이 공사장 임시막사, 찜질방 등에서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는 주택 이외의 거처 가운데 오피스텔과 숙박업소, 기숙사,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가 아닌 곳으로 공사장 임시막사와 사찰, 교회, 상가, 찜질방, 움막, 노숙 등이다.

지역별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인구를 보면 경기도가 1만 8264명(7378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7954명(3711가구)에 달했다. 기타는 서울이 7만7093명(3만9426가구)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만2274명(2만2731가구), 경북 1만4624명(3618가구), 경남 1만1738명(350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윤현식기자 chadol@

2011년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템 창업지원 및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1. 신사업 아이템 창업지원

- 지원목적 : 소상공인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시하고 새로운 창업 아이템 및 모델개발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과정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사업 아이디어와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창업자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7월 22일(금) 18:00 까지
- 지원내용
 - 사업모델 개발 : 창업아이디어에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사업화를 위한 모델개발 지원
 - 사업화 지원 : 개발된 사업모델 중 우수 사업모델을 선정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사업모델 개발 : 사업모델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300만원 지원
 - 사업화 지원 : 업체당 최대 4,000만원

2.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목적 :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과당경쟁 업종에서 탈피한 신사업모델을 발굴·보급
- 신청대상 : 소상공인의 창업에 적합한 업종의 신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모든 분
- 신청분야 : 새로운 사업 방식, 기존 사업의 변형, 서비스 업종의 융합 등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8월 19일(금) 18:00 까지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소상공인진흥원장상 및 상금 300만원
 - 우수상(1명) : 소상공인진흥원장상 및 상금 200만원
 - 장려상(2명) : 소상공인진흥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3. 문의 및 접수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전주소 팀장(042-363-7740)
 - 신사업 아이템 창업지원 : 이재형 042-363-7748
 -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 천종혁 042-363-7745
-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eda.or.kr) 또는 신사업 지원 홈페이지(www.newbiz.or.kr) 참조
- 접수처 :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등기우편은 마감일 소인분 유효)
 - 주소 : (302-82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032번지 동서빌딩 7층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신사업 아이템 창업지원" 또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표기
 - 신사업 아이템 창업지원 E-mail : bm@seda.or.kr
 -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E-mail : event@seda.or.kr

- 성공창업의 꿈을... 포핀스 차일드 케어 서비스 -

나는 예전부터 현대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교육'과 '케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 산업에 주목하고 있었다.

베이비시터 산업이 미래 유망업종이라는 확신이 들어 창업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이 시행하는 신사업 모델개발 사업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시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지만, 그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를 위한 모델개발과 창업지원 및 창업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나는 "포핀스 차일드 케어 서비스"에 대표로 독서시터, 영어교육시터, 놀이시터 등으로 단순히 보육차원을 넘어서 "엄마를 빌려준다"는 감성적인 컨셉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창업한지 만 1년이 안된 상황에서 2호점을 확장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성공창업에 한걸음 다달을 수 있게 만들어준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진흥원의 관계자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감사 드린다.

